

TV 25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4 columns: KBS1, KBS2, MBC, KBC/SBS. List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Table with 2 columns: EBS 플러스1, EBS 플러스2. Lists EBS Plus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Table with 2 columns: EBS플러스1, EBS플러스2. Lists EBS Plus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벌써 1년... 새로운 시도 늘 고민”

KBS '뉴스타임' 진행 정세진·이윤희 앵커

“시작할 때는 경제위기로 광고가 0개에서 출발했는데 지금은 10개 완판되고 있어요. 시청률도 3%에서 7~8%까지 올랐습니다.”

지난해 국내 지상파 방송 최초로 여성 더블 앵커 시스템을 도입한 KBS 2TV '뉴스타임'이 지난 17일로 방송 1년을 넘겼다.

정세진(36·사진 오른쪽)이나운서(32) 기자는 “1년이 고비라고 생각했는데 잘 버틴 것 같고 앞으로 3~5년 더 가는 게 목표”라며 웃었다.

정세진이나운서는 “얼마 전에 소래 포구에 취재를 갔는데 시장 아주머니들이 저희 둘의 이름까지 정확하게 아시고 우리 뉴스를 보시고 하셔서 정말 놀라고 기분 좋았다”며 “1년간 어느

정도 시청자는 확보한 것 같은데 이제 그것을 어떻게 유지, 발전시키느냐가 중요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지금은 방송에서 자체채널 보이스 두 앵커는 프로그램 초반만 해도 ‘안 친해 보인다’는 지적을 받았다. 대비되는 면이 많이 보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미 친한데 방송을 보시고 ‘안 친해 보인다’는 지적을 받았다. 대비되는 면이 많이 보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미 친한데 방송을 보시고 ‘안 친해 보인다’는 지적을 받았다. 대비되는 면이 많이 보였기 때문이다.”

“제가 약간 무뎠다 해서 그래요. 마음은 안 그러는데 윤희 씨가 던진 말을

잘 못 받아줬어요. ‘뉴스타임’은 앵커 캐리 대화가 많고 말을 주고받는 게 많은데, 전 그동안 뉴스를 진행하면서 다른 앵커와 말을 주고 받아본 적이 없어 초반에 좀 경직됐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둘의 호흡은 자연스러우며 서로의 특징이 하나로 잘 융화되는 지점에 이르렀다. 프로그램이 그만큼 안정됐다는 의미이기도 한데, 이쯤에서 진행 스타일의 변화를 시도해도 될 듯하다.

정세진이나운서는 “안 그래도 요즘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 좀 더 과감하게 다른 뉴스와 차별화를 해야 하나, 확 변화해야 하나 고민 중인데 아이টে이 따라 조금씩 실험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도 ‘뉴스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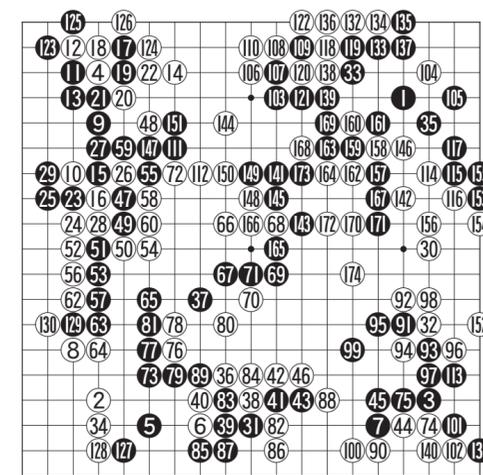
임’에 대해 ‘다른 뉴스와 다르다’는 말들을 한다. 접근방식이 달라서 재미있다고 하시는데, 제작진끼리의 소통이 원활한 덕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여성 앵커 둘을 내세워서가 아니라 내용이 차별화되면서 뒷받침되기 때문에 우리 프로그램이 다른 뉴스와 달라 보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주광역시 바둑협회장배

우승보다 값진 성과

중고등부 결승전 총보 (1~174)

白 권재구 5단 黑 최우형 5단 <세종고 2> <신가중 1>



중·고등부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동등한 자격으로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중학생이 경험이나 연륜이 앞선 고등학교 선배들을 물리치고 결승에 진출한다는 자체가 어려운 일일뿐만 아니라 대단한 활약이다.

이 바둑은 최우형군이 아직은 경험부족임이 드러나고 있다. 막강한 상대를 만나 몸이 굵은 맛도 있었지만 중앙의 집전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1월 25일(음 10월 9일 甲戌)

- 36년생 남을 위해 봉사하라... 48년생 돈이 생기니 쓸 구멍이 생긴다... 60년생 마음을 문을 열어 이해가 된다... 72년생 사소한 일이 오히려 중요하다... 84년생 수하인에게 자비를 베풀면 거꾸로 존경이 되돌아온다.

Language learning section with four columns: 1. I'll put it on low (English), 2. 伝言(でんごん)ですよ (Japanese), 3. 亮 단지, 그제 (Korean), 4. 内憂外患(내외환) (Chinese).